

이름	이창호	글쓰기 수업 분반	13분반
학번	20230250	글쓰기 담당 교수님	강정화

조선인을 향한 정신적 지배, 조선 신궁

-한국사 현장체험학습 방안 연구-

한국역사학과 20230250 이창호

목차

- I. 들어가며
- II. '조선 신궁'과 고교 『한국사』 내용
- III. 남산소재 조선 신궁 현장체험학습 방안
- IV. 맺음말
- V. 참고문헌

I. 들어가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인식하고 의문을 가져 비판할 수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하거나 참여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역사 수업에서 이것이 지켜지고 있을까? 현재의 교육 체제 속 교실 역사수업은 교사의 주도 아래 대입을 위한 시험 대비 교육에 집중되어있다. 시험을 위해 교사 중심으로 지식 암기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면 역사를 비판하거나 의문을 가지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요구에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식 암기를 위한 설명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교수 방안을 실제 역사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현재 9종 검정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전근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근현대사의 비중을 늘렸다고 한다. 근현대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직관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 현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본고는 근현대사의 현장인 ‘조선 신궁 터’를 현장체험학습의 현장으로 삼고자 한다. 조선 신궁은 1925년에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 남산에 만들어진 일본식 절이다.

193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황국 신민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며 남산이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와 더불어 우리 역사에서 조선 신궁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고는 먼저 조선 신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신사’ 부분에 대한 서술을 분석한다. 이후 직접 터를 방문해 답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체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조선 신궁'과 고교 『한국사』 내용

1) ‘조선 신궁’의 연혁

남산, 지하철 4호선을 타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으로 뽑힌다. 그러나 이런 남산이 1920년대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 권력의 산물로서 작용된 공간임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일본은 식민지 조선으로서의 새로운 국가체제 공간으로 남산에 조선 신궁 창건을 계획하여 1925년에 완공했다.



<그림 1>남산에 세워졌던 과거 조선신궁 가상 복원 모습¹

제국주의가 등장하며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강점 사실을 선의로 탈피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동화정책’이 있었다. 동화정책이란 식민지 영유국이 식민지 원주민들의 고유의 언어, 역사, 문화, 생활양식 등을 압살하고, 그것을 자국민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정책이었다.² 내선일체, 동화정책 등은 식민지 한국인들을 정신적으로 ‘일본인화’하려는 정책들에서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들이었다. 이런 ‘일본인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교육과 종교였다. 본고에서는 조선 신궁이라는 종교 정책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일제의 조선총독부는 1910년 강점 직후부터 일본의 신사(神社)제도 곧 국가 신도(神道)를 이식한 동화정책을 구상했다.

그렇다면 국가 신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¹ KBS역사저널 그날 [영상한국사 07 일본,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조선 왕궁을 훼손하다.]

² 김철수(2010), 「조선신궁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검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 인문학연구소, p.371.

고유의 신도라는 종교가 존재했다. 이는 자연물, 자연현상을 신처럼 여기는 마을 신앙을 기원으로 하는 일본의 전통 종교이다. 이런 일본의 종교 정책은 1910년 조선 강점 당시부터 진행되어 1925년 조선 신궁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우고 일본의 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신궁의 제신³으로는 일본 탄생 신화의 아마테라스와 일본 근대화의 주역 메이지 천황이 선정되었다.



<그림 2>우리역사넷, 조선 신궁 전경

3.1운동, 일제가 조선 신궁의 설립을 허가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반일 감정을 세우는 한국인들에 불안함을 느낀 한국 거주 일본인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때문에 일본인들이 어릴 적부터 믿어오던 신, 종교, 즉 신도를 활용해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조선 신궁은 일본인들에게 안정을, 조선인들에게는 ‘일본인화’를 돕는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남산에 세워진 조선 신궁은 ‘신사’가 아닌 신사 중에서도 제일 높은 단계의 ‘신궁’으로 격상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넓은 경성에 왜 굳이 남산일까? 남산은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 서울의 모산(母山)으로 꼽히기도 했었다. 조선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가 남산에 국사당(國師堂)을 지어 조선 왕조의 번영을 빌었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남산은 결코 단지 서울의 많은 산 중 하나가 아니다. 일제는 조선 신궁을 세우기 위해 이런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내몰고 그 자리에 조선인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조선 신궁을 세운 것이다. 또한 남산은 경복궁 앞에 자리하고 있어 조선 신궁과 경복궁은 일자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남산 위 조선 신궁의 존재는 조선의 건국 이념을 없애고 왕조가 끝났음을 상징하며 한국인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게 된 것이다.

2) 고등학교 한국사 9종 교과서 ‘신사’ 부분 서술 비교, 분석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조선 신궁 터와 관련이 깊은 단원을 뽑자면 3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그 중에서도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을 꼽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신사’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가르치는지 알아보려고 신사 참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서 서술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9종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중 ‘신사’ 부분에 탐구 활동이 들어간 교과서를 중심으로 표를 제작하였다.

³ 제사로 모시는 신

출판사 (가나다 순)	비중		분량 본문 기재	자료	탐구활동
	‘신사’ 관련 내용 단독 소주제	민족말 살정책 내용 포함			
씨마스	X	O	2줄 조선 신궁 언급O	1. 조선 신궁에 참배하는 학생들 사진 2. 남산의 조선신궁 입구와 현재 일부만 남은 계단 사진	지역사 탐방
지학사	X	O	1줄 조선 신궁 언급O	1. 조선 신궁을 향해 참배하는 모습 사진 2. 남산의 조선 신궁	심화학습(조 선 신궁 소개)
동아	X	O	2줄	1. 신사참배 강요 사진 2. 남산 조선 신궁 사진	심화학습

<표 1> 9종 교과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신사’부분 비교

교과서 상 신사 참배에 관련된 내용은 일제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방식 중 하나로 9종 교과서 모두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신궁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신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교과서는 9종 중 3종에 불과했다. ‘전국의 각 면마다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자기 나라에 공을 세운 자의 위패를 모아 둔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였다.’⁴ 미래엔 교과서의 신사 서술 부분이다. <동아>, <씨마스>, <지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신사 참배’ 행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반면 <표 1>의 3종 교과서에서는 강제 참배 뿐 아니라 조선 신궁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전국 모든 읍과 면에 신사를 세우고, 조선 신궁을 비롯한 신사에 참배를 강요하였다.’⁵

교과서의 탐구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고와 현장체험학습이라는 테마가 같은 <씨마스>교과서를 살펴보자. <씨마스> 교과서에서는 ‘지역사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남산에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픔이 남아있다고 하며 활동을 제시한다. 남산이라는 명확한 지명과 함께 조선시대의 남산부터 광복 후 남산까지의 역사를 설명한다. 또한 조선 신궁에 제신으로는 무엇이 있었는 지도 설명한다. 본고는 <씨마스> 교과서를 참고하여 더욱 구체적인 현장체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 남산 소재 조선 신궁 현장체험학습 방안

1) 현장체험학습 모형 개발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남산 중턱에 위치했던 ‘조선 신궁’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제가

⁴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p.210.

⁵ 비상 한국사 교과서 p.213.

조선 민족의 민족 정신을 억압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이곳에는 현재 조선 신궁의 배전터와 안중근 동상이 남겨져 있다. 배전터는 일반인들이 참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곳이었고, 안중근 동상은 사라진 조선 신궁을 채운 현대사의 과제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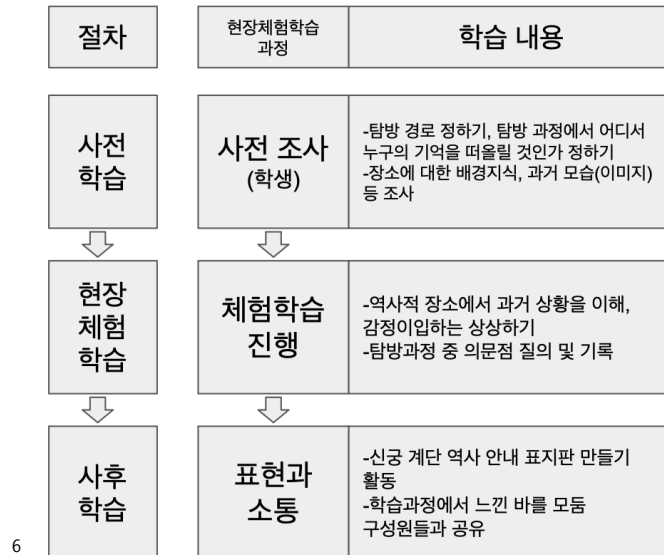
<그림 3>조선 신궁 배전 터 <그림 4>안중근 동상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역사를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조선 신궁 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 비관점은 무엇이 있을까? 직접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조선 신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뽑을 수 있다. 사진의 계단은 과거 조선 신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현재는 384개의 계단 중 111개의 계단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조선 신궁의 계단이었다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2005년 드라마인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이 계단이 등장해 유명세를 타며 일명 '삼순이 계단'이라는 표지판만이 존재했다.



<그림 5>조선 신궁 오르는 계단과 ‘삼순이 계단’ 표지판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표지판 하나 없이 단지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기억해도 될까? 본고는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방안을 마련했다.



6

<표 2> 조선 신궁 터 현장체험학습 과정

사전 지식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아무런 학습적 지식을 습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 신궁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있는 신궁 배전터를 지나 안중근 동상을 확인하고 계단으로 향하는 동선을 미리 계획한 후, 과거의 이미지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현재와 과거의 신궁 모습을 기억하며 현재와 과거가 대비되는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을 나가 사전 학습에서 학습한 조선 신궁의 모습을 실제로 느낀다. 특히, 역사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입이 중요하다. 조선 신궁 터에서 과거의 강제 참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면서 당시 일제의 통치 방식이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을 얼마나 빼앗았는 지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 사후 학습으로 조선 신궁 계단의 문제점을 역사 안내 표지판 만들기 활동으로 학생 나름대로 해결하면서 역사 비판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2) 기대효과

조선 신궁 터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한 역사 수업 모형은 3가지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현장에서 학생 스스로 역사의 길을 찾아 탐구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학생 스스로 이식할 수 있다. 사전 학습을 바탕으로 한 현장 답사는 학생 스스로가 보고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므로 학생 스스로 역사 현장을 탐구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

⁶ 김민수(2018), 「부산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지역사 체험학습 방안 모색」, 『역사와 사회』 53, 효원사학회, p.59-90. 을 바탕으로 제작

둘째, 역사적 사건 속 장소를 직접 체험하며 상상력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에 감정 이입할 수 있다. 조선 신궁 터로 오르는 계단을 학생들이 직접 오르며 당시 강제 참배를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본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배워 몸소 감정 이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 이입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현대 한국 사회가 지닌 역사적 문제에 대해 통찰을 요구하는 현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역사 문제를 인식하고 알리면서 이것을 후대로 이어주는 가교제 역할을 할 것이다. <신궁으로 향하는 계단>에서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며 현재 역사 문제를 인식하고 마지막 학습 활동으로 표지판의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보며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IV. 맺음말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한 역사 수업은 학생들이 교실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수동적이고 지루한 수업이 아닌 직접 체험과 소통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준다. 교과서에서 마주한 역사를 현장에서 역사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사 비판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역사를 이끌어 갈 사람으로써 알아야 할 당시 조선인의 정신적 지배의 비극을 담은 조선 신궁 터를 현장체험학습의 장으로 삼아 당시 조선인들의 감정에 이입해 봄으로써 살아있는 역사 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조선 신궁 터의 연혁을 살펴보며 1930년대 일제의 통치방식을 고찰한 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신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실제로 현장 답사를 가 이것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방안을 마련했다. 본고에서 마련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을 통해 역사적 상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역사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주도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물론 많은 역사 교사를 비롯한 역사 전문가들은 아직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역사 수업이 현 교육과정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현장체험 학습의 효과, 중요성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만큼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기사]

노형석(2014.8.13), 일제가 한양성곽 부수고 지은 조선신궁터 발견, 한겨레.

[교육과정, 교과서]

2015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2018.07.27 고시)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금성교과서, 동아출판,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사, 천재, 해냄에듀)

[논문]

최은희. "고등학교 역사수업에서 현장체험학습 사례."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서울

김대호(2015), 「20세기 남산 회현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 공원, 신사, 동상의 건립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13, 도시사학회, p.7-60.

김철수(2010), 「조선신궁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검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 인문학연구소, p.370-395.

김민수(2018), 「부산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지역사 체험학습 방안 모색」, 『역사와 사회』 53, 효원사학회, p.59-90.